

Sun 일	Mon 월	Tue 화	Wed 수	Thu 목	Fri 금	Sat 토
	<p>국경 신의주의 겨울 신실한 경비</p> <p>겨울 놀이</p>		<p>1</p> <p>한반도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고,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오게 해 주소서.</p>	<p>2</p> <p>연평도 주민들을 돌아보시고, 특별히 북한의 포격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지켜주소서.</p>	<p>3</p> <p>두 달간 미국에 머물게 될 리즈 교장선생님과 벤신부님이 준비를 잘 하게 하소서.</p>	<p>4</p> <p>허리 디스크수술 이후 병가중에 있는 박 마임자매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소서.</p>
<p>5</p> <p>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 짝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</p> <p>사 11:10</p>	<p>6</p> <p>연평도 교전이후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소서.</p>	<p>7</p> <p>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을 돌아보시고,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돌봐주소서.</p>	<p>8</p> <p>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더 이상 남한에 대한 도발행위를 하지 않게 하소서.</p>	<p>9</p> <p>남한 및 전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.</p>	<p>10</p> <p>생명의강 학교가 내년을 잘 준비하고, 특별히 새로운 교사들을 잘 세우게 하소서.</p>	<p>11</p> <p>12 월로 삼수령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신세례요한 가족의 그동안의 신실한 섬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.</p>
<p>12</p> <p>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</p> <p>사 11:4a</p>	<p>13</p> <p>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필요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도록 인도해 주소서.</p>	<p>14</p> <p>자신들의 신앙이나, 지도부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핍박 받는 북한 주민들을 돌아봐 주소서.</p>	<p>15</p> <p>남한의 지도자들과 대통령 및 미국의 대통령에게 지혜를 부어 주소서.</p>	<p>16</p> <p>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, 또 핍박을 피해서 중국에 머무는 북한 주민들을 돌봐 주소서.</p>	<p>17</p> <p>생명의강 학교 개교 첫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해 주소서.</p>	<p>18</p> <p>삼수령에 남아있는 지체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소서.</p>
<p>19</p> <p>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</p> <p>시 72:2</p>	<p>20</p> <p>북한의 지도부가 진정한 왕이 누구 인지를 깨닫고 그의 정의를 추구하게 인도 하소서.</p>	<p>21</p> <p>그리스도를 찾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소서.</p>	<p>22</p> <p>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평화의 왕자와 천국에 대해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도와 주소서.</p>	<p>23</p> <p>극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시고, 이 지역의 나라들이 자유와 의를 추구하게 하소서.</p>	<p>24</p> <p>생명의강 학교의 가족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가정들을 인도하소서.</p>	<p>25</p> <p>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</p> <p>사 9:2</p>
<p>26</p> <p>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 리하리도다</p> <p>시 72:3</p>	<p>27</p> <p>북한의 지도부가 그 백성과 나라를 위해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게 하소서.</p>	<p>28</p> <p>기아와 폭력으로 부모를 잃은 북한의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소서.</p>	<p>29</p> <p>남한정부와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 주민에게 식량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인도하소서.</p>	<p>30</p> <p>다가오는 새해에는 북한에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동이 터 오르게 하소서.</p>	<p>31</p> <p>생명의강 학교가 새로운 한 해동안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소서.</p>	

네번째강 계획: 북한 개방을 위한 준비

삼수령목장과 센터: 노동과 훈련을 통해 북한 개방을 준비하기 위한 장소

삼수령 공동체: 이 일을 위해 함께 헌신한 형제 자매

생명의강 학교: 통일세대를 준비